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53>

JCCT 2024-5-9

##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에서 평등, 노동, 경쟁

### Equality, Labor and Competition in the ‘Grapes of Wrath’ by John Steinbeck

손동환\*

Shon Donghwan

**요약** 소설 ‘분노의 포도’는, 오클라호마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톰 조드 가문의 이주 여정과 캘리포니아에서의 역경을 통해 대공황 시대 미국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여주고, 그들의 분노에 대한 공감과 형제애적 해결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이 글은 각 소설적 상황을 소재로 헌법, 노동법,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오클라호마 소작농들의 빈곤이 선택의 결과가 아닌 자연환경과 자본집중화 탓에 비롯된 현실이므로 국가가 개입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이 평등권 실현이라는 점을 제시하고, 노동법적 관점에서 근로자공급사업이 노동력의 중간착취에 해당하므로 위헌이고 조드 가족과 같은 이주민들에게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으며, 경쟁법적 관점에서 대지주들의 과일가격 설정이 약탈적 가격설정에 해당하고, 농장주들이 유사하게 낮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는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였다. 이를 통해 법제도가 현재 있을 법한 대중의 분노를 해결해야 하는 수단임을 인식시키고, 소설 속 이야기가 소수자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소재임을 보여 주려 하였다. 소설 읽기가 실질적 차원의 법 해석과 정의로운 사회의 지표로서 타인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되기를 희망한다.

**주요어 :** 분노의 포도, 법적 관점, 헌법, 노동법, 경쟁법적 관점

**Abstract** The novel "The Grapes of Wrath" shows the painful reality of Americans during the Great Depression through the migration journey of the Tom Jod's family, who had no choice but to move from Oklahoma to California and their hardships in California. This presents empathy for their wrath and offers hope for a brotherly solution. This article presents institutional solutions against each novel sit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 labor law, and competition law.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the poverty of Oklahoma's smallholders is not a result of choice, but is caused by the natural environment and capital concentration, so it is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have to intervene to guarantee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to realize equal rights. From a labor law perspective, worker supply projects are unconstitutional because they constitute intermediate exploitation of labor, and immigrants like the Joad family have the right to form labor unions.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it was shown that the large landowners' setting of fruit prices constitutes predatory pricing, and the farmers' attempts to pay similarly low wages constitute collusion. Through this, the attempt was made to recognize that the law is a means to resolve the public wrath that may currently exist, and to show that the story in the novel can bring empathy and understanding to minorities. It is hoped that reading novels can be a way to help interpret the law and sympathize with others as an indicator of a just society.

**Key words :** Grapes of Wrath, Legal point, Constitution, Labor law, Competition law

\*정희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접수일: 2024년 3월 7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5일  
게재확정일: 2024년 4월 20일

Received: March 7, 2024 / Revised: April 5, 2024  
Accepted: April 20, 2024

## I. 들어가며

### 1. 논의대상과 줄거리

존 스타인벡은 1930년대 대공황으로 고통받는 미국 사회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을 남겨 왔는데, 1962년 ‘분노의 포도’로 노벨문학상을 받는다. 그의 작품은 사회주의 참여문학의 계열로도 인식되기도 하고, ‘분노의 포도’는 캘리포니아와 오클라호마, 캔자스 등에서 금서 판정을 받는 우여곡절을 겪는다. 작품뿐 아니라 작가 자체의 이미지도 대중에게 강하게 남아 있다. 그의 작품 ‘에텐의 동쪽’은 제임스 딘 주연의 영화로 더 알려졌고, 존 스타인벡의 이미지도 제임스 딘의 반항적 이미지와 오버랩되곤 한다. ‘분노의 포도’ 역시 영화화 되었는데 당시 최고 감독이던 존 포드가 헨리 폰다를 주연으로 내세워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고, 가장 위대한 미국영화 톱10에 들기도 하였다[1].

소설은, 톰 조드가 동네 사람을 죽인 혐의로 4년간 수형생활을 하다 가석방되어 오클라호마 본가로 돌아 오면서 시작된다. 그의 가족들은 오랜 가뭄에 더 이상 소작농을 할 땅마저 빼앗길 지경이었고, 캘리포니아로 오면 일자리가 있다는 전단지들 믿고, 고향을 등지고 캘리포니아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목사였던 짐 케이시와 조드 가족들은 중고 트럭을 타고 캘리포니아로 가는 66번 국도길에 들어서고, 수많은 행렬들에 끼어 캘리포니아로 향한다.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할아버지가, 여정의 막바지에 할머니가 죽음을 맞고 제대로 된 장례도 없이 그들을 길가나 공동묘지에 묻고 캘리포니아에 들어선다. 톰의 형 노아와 여동생 로자산과 결혼한 코니도 가족을 떠나버리고, 조드가 사람들은 일 자리를 찾으려 하지만, 전단지 내용과 달리 일 자리를 구하려 캘리포니아로 온 사람들은 너무 많았고, 터무니 없이 낮은 임금과 단기간의 일자리만 있을 뿐이었다. 게다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이주민들에 대한 강한 반감을 보였고 보안관보들은 그들을 괴롭혔으며 이주민들은 서로 반목하고 낮은 임금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여러 부조리가 목격되었다. 조드 가족들은 처음에는 후버빌 천막촌, 그 뒤 국영천막촌, 복숭아 농장, 목화농장 옆 유계화차 천막촌을 전전하게 된다. 조드 가족들은 복숭아 농장에서 1상자의 복숭아를 따는데 5센트를 받고 일하게 되었는데, 뜻밖에 농장 밖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잡기 위하여 수색대가

동원되어 경계가 삼엄하였다. 시위대는 자신들도 처음에는 5센트를 받다가 곧 2.5센트 제안을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쫓겨났다면서 당신들도 곧 2.5센트밖에 못받을 터이니 자신들과 연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침 시위대는, 후버빌 천막촌에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보안관보들에게 끌려가면서 헤어졌던 짐 케이시가 이끌고 있었다. 농장주에게 고용된 듯한 수색대에게 짐 케이시가 살해당하고, 이를 목격한 톰 조드는 살인범을 우발적으로 죽이고 가족이 머물던 천막촌에서 떨어져 숨어 지내게 된다. 큰 비가 내리던 날 임신 중이던 로자산은 사산을 하고, 홍수로 조드 가족의 유일한 재산 중고트럭도 물에 잠기게 되고, 조드 가족들은 홍수를 피해 오래 된 헛간으로 피신한다. 그곳에는 굶어 죽어가던 남자와 아들이 있었는데, 로자산이 그에게 젖을 먹여 살리려 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소설은 끝을 맺는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다소 그로테스크한 느낌을 주지만, 감옥에 수감된 아버지에게 음식제공이 중단되자 면회를 간 딸이 몰래 젖을 먹여 아버지를 연명시켰다는 이야기를 그린, 루벤스의 ‘시몬과 페로(로마인의 자비)’를 연상시킨다.

### 2. 선행연구와 논의방향

‘분노의 포도’를 이해하는 방법론으로, 상징과 은유를 통하여 작가의 의도와 작가에 대한 근원적 이해가 시도된다. 목사 짐 케이시에 관하여, 그의 이니셜 JC에서 시작하여, 자신을 죽이려는 수색대를 향하여 ‘너희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고 말하며, 플로이드를 대신하여 보안관보에게 체포되고, 복숭아 농장에서 터무니 없는 임금을 거부하며 노조를 통해 그들을 도우려다 희생당하는 짐 케이시를 예수(Jesus Christ)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주체의식을 찾기도 한다[2]. 이 소설을 끌고 가는 이야기 방식 중 대표적인 것으로 상징을 들면서, 조드 가족의 캘리포니아로의 이동을 출애굽이나 미국민들의 영웅적 서부개척사와 연결시키는 점, 어머니 조드를 모세적 역할을 하는 공동체 유대의식의 상징으로, 짐 케이시를 에머슨식 초월주의에 기초한 범영혼주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배경에는 존 스타인벡 가문이 부계는 독일, 모계는 아일랜드로부터 이주해 온 개인사가 소설 속 인물들이 가지는 희망의 낙관주의로 연결된다는 설명을 하기도 한다[3]. ‘분노의 포도’가 제시하는 문제의식을 단순히 자본가와 노동자, 선점자와 이주민의 갈등에 한정하지 않고 소유

자체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존 스타인벡의 해법이 개인을 넘어선 우리로의 연대라고 보고 그 한계를 지적하는 이해도 있다[4]. 작가와 작품의 의도를 보다 한정하여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를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하고, 공공선의 실현과 형제애를 해답으로 제시하면서 파업에 대한 회의적 생각, 홍수에 대한 대비를 위한 댐 축조가 실패했을 때 조드 가족에 대한 비난 등을 형제애의 한계로 제시하면서도 로저산의 행위처럼 포기하지 않는 형제애를 강조한다고 이해하기도 한다[5].

분노의 포도에 나타난 갈등상황과 문제의식이 반복되고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이 소설의 문제상황을 소재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접근을 시도해 본다. 이는 소설적 상황을 통하여 법률가들에게 소수자에 대한 공감, 비법률가들에게는 법과 제도가 가지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 소설에서는 작가의 법에 대한 시각이 드러난다. ‘가끔은 아무리 해도 법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는 법이요. 남한테 부끄럽지 않게 법을 따르려면 그렇죠. 그럴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가끔은 법도 가려가며 지켜야 해요.’라는 톰 조드의 이야기나, 아들 톰이 사람을 죽인 범죄에 대하여 ‘누구나 할 만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아버지의 반응들도 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냉소적 대응에 대하여 현재 우리 사회는 얼마나 법과 제도를 통하여 공감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 II. 자유와 평등에 관한 헌법적 관점

### 1. 소설 속 문제상황

조드 가족은 오클라호마 고향을 떠나게 되었다. 그들은 지주로부터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어 소작료를 내고 생활해 왔다. 오클라호마를 비롯한 텍사스, 콜로라도, 캔자스 등은 오랜 세월 역센 뿌리로 흙을 엮어매어 가뭄으로부터 토양을 보호해 오던 자연초를 개간하여 농지로 만들었는데, 대공황 무렵의 가뭄은 농토를 더 이상 농사지을 수 없는 황토로 뒤덮이게 하였다. 기존 지주들은 은행 빚을 갚지 못하여 땅을 빼앗겼고, 은행은 종전과 같은 소작농 방식으로는 수익을 올리지 못하자, 트랙터를 이용한 기계식 영농방법을 도입하면서 조드 가족과 같은 소작농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어 생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야칸소 농민을 위한 2,500만불 추가지원 증액 안에 대하여 후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위험한 발상이라며 거부하였다. 미국식 대응은, 빈곤은 개인의 게으름에서 비롯된 것이고 구제와 사회보험은 노동자의 도덕적 해이만 가져오고 반미국적이라는 것이었다.

### 2. 헌법적 관점

경제적인 면에서 자유의 실질적 의미는,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거래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적 자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자유와 사적자치의 보장은, 사회가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고 특정 집단이 배제되고 있다면 허상에 불과하다. 헌법은 자유권과 동시에 평등을 보장하고 있고, 사회적 불평등 구조 탓에 생기는 개인의 불이익을 극복하여 자유를 실현할 조건을 보장하는 것은 평등권 실현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등 보장은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최저생활 보장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의 향유로서 경제적 기본권뿐 아니라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은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만약 어떤 사회에 최저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소수가 존재하고 그들의 경제적 곤란이 고착화되어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면 사회가 분열된다. 나아가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보장과 자기지배로 요약되는 민주주의가 작동하기도 어렵게 된다. 다수와 소수가 고착되고 소수의 의사는 늘 배제되기만 한다면 소수는 다수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헌법이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소득분배의 적정성, 경제주체간 조화를 경제질서의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절대적 빈곤층이 존재하고, 그 빈곤이 개인의 불운만으로 돌리기 어렵고 이를 쉽게 극복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국가가 사적자치라는 이름으로 이를 방기한다면, 이는 헌법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최저생활 보장이라는 평등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가진다[6].

조드가족을 비롯한 오클라호마 일대 소작농들의 빈곤은 그들의 선택에 의한 농업 실패로 인한 것으로 그들 스스로 선택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결과이니 그들 책임이고 국가가 그들을 원조하거나 그들의 생계수단을 확보해 주는 것은 오히려 지주인 은행들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도덕적 해이만 조장할 뿐이라고 할 것 인지의 문제이다. 국가 정책이 헌법적 정당성을 가지는

지를 평가하는 단계를 넘어서 어떠한 정책이 보다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답하는 것이 헌법해석의 과제이므로, 노동과 자본이 분화되고, 자본으로부터 분리된 노동은 고착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분명해진 현대사회에서는 적어도 최저생활 보장 정책이 평등권 실현과 헌법의 규범성을 담보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조드 가족처럼 소작농 상황에서도 생활할 수 없어 고향을 떠나야 할 지경이고, 그런 상황이 대규모 가뭄이라는 자연환경과 자본의 집중화 탓에 비롯되었으며, 노동의지가 있어도 노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녀양육과 직업교육을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국가가 이를 방기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III. 노동법적 관점

#### 1. 소설 속 문제상황

허버빌 천막촌에 나타난 노무공급업자. 그는 톨레어 과수원에서 과일따기 노무제공사업을 도급받았고 일할 사람을 모집하려고 한다. 플로이드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노무공급업자에게 언제부터 어디서 얼마 품삯에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서를 써주면 가겠다고 한다. 노무공급업자는 이를 거부하고 자기는 사업을 마음대로 운영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플로이드는 인부가 2,000명 필요하면서도 5,000명을 모집하고 임금을 시간당 15센트만 줄 것이고, 그러한 열악한 조건에도 배고픈 사람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자기는 2번이나 이런 수법에 속아 넘어갔다고 소리친다. 그러자 노무공급업자와 동행했던 보안관보는 플로이드를 빨갱이라고 부르며 연행하려고 하고 플로이드는 그의 총격을 피해 도망친다.

#### 2. 노동법적 관점

공사현장에서 이른바 십장이 일정 공사를 도급받은 후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고용하여 해당 공사를 완성시키는 구조를 고향제(苦汗制, sweating system)라고 하고, 이는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7]. 이 방식은 원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직접 나서지 않고 중간에서 노동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감시하면서 노동을 시킨다는 면에서 원사업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원사업자에게는 저가로 노동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반면, 노동자는 중간의 십장으로부터 채용부터 노무제공시의 감독까지 받으면서 착취당하는 구조가 된

다. 이와 같은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사적자치론을 주장할 수 있지만, ILO는 1933년 제34호 협약인 유료 직업소개 및근로자공급서비스업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영리목적의 직업소개 및 공급서비스업체는 당국이 승인하는 범위에서만 설립가능하도록 하였다. 우리 근로기준법도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제9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낮은 임금이라도 노동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에 이르게 하는 중간착취를 금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보교환 불완전성과 근로를 공급받고 공급하려는 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면적 금지가 아닌 근거법률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직업안정법과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근거법령으로 역할하고 있다. IMF 이전에는 근로자공급사업은 항운노조 외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엄격금지 상태였고, 허가제로 운영하는 근로자공급사업의 합헌성을 헌재가 인정한 바도 있다. 근로자공급사업은 3명의 당사자가 등장하는데, 근로자는 근로자공급사업자로부터 계약상 지배를 받으면서 근로를 공급받는 자에게 지시·감독을 받는 사실상 사용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산재, 해고, 임금 지급 등의 문제에 관하여 누가 사용자인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 생길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받은 IMF 이후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었고,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기간 요건 등을 위반한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와의 직고용관계를 인정하고, 산재와 임금, 해고 등에 관하여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명시적 규정들을 둬으로써 중간착취라는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소설 속 노무공급업자는 조드 가족과 같은 이주민들로서는 정보의 부재 속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들의 행위는 노동을 제공하는 이주민들의 보호장치가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는 대표적 중간착취에 해당한다. 노무공급업자는 자기 사업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엄연히 위법이고 위헌적이다. 이는 당시 미국 법률이 중간착취를 금지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 않았더라도 위헌적 조치라는

의미이다. 이외에도 톱 조드와 짐 케이스는 노조의 결성을 도우려고 하는데, 이주민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할 권리가 있는지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플로이드를 보안관보는 빨갱이라고 부르며 체포하려 하였고 짐 케이스가 대신 체포된다. 작가는 빨갱이의 의미에 대해 3만 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는 하인즈의 말을 빌려 ‘우리가 25센트를 주겠다고 할 때 30센트를 달라고 하는 자식들이 다 빨갱이’라고 전한다. 우리 헌법은 결사의 자유만 규정한 미국과 달리 근로 3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의 정당한 가격을 사적 자치에 맡기면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만 가격이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근로자단체의 창출을 통하여 사회적 세력 균형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다. 근로 3권은 단지 근로자들의 단체 결성에 대하여 국가나 사용자의 방해를 막으려는 자유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입법을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인 근로3권을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사회적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 앞서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 본 평등권 실현의 방법으로서 근로 3권 보장을 위한 국가개입의 정당성과 필요성이 이 점에서 제기되는 것이다. 조드 가족을 포함한 이주민들의 노조 결성은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 IV. 경쟁법적 관점

##### 1. 소설 속 문제상황

대지주들은 통조림 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고안하였다. 복숭아와 배가 익으면 대지주는 과일값을 제배비용보다 싸게 후려쳤고, 통조림 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대지주는 싼 값에 과일을 사들인 후 통조림 가격을 높여서 이윤을 올렸다. 소규모 농부들은 낮은 과일값 탓에 농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작은 농장들 역시 대지주의 소유가 되었다. 이들 역시 고속도로로 나섰고 도로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살인이라도 저지를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한편 소규모 농장주들은 나름의 기준대로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대출은행으로부터 임금지시세를 제시받고 그에 따르도록 권유받았다.

##### 2. 경쟁법적 관점

###### 1) 저가경쟁

경쟁법은 경쟁촉진을 목적을 하여 독점과 담합을 금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을 하고, 미국 서면법과 EU조약 제101조, 제102조 및 우리 공정거래법으로 대표된다. 독점사업자들의 여러 행위들이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해오면서 특정한 전형적 행위들에 대한 판단이 누적되어 왔고 새로운 경제상황에서 나타나는 행위들도 종래 전형적 행위들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여 신유형의 행위들을 판단하여 왔다. 약탈적 가격설정행위(predatory pricing)는 독점사업자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고 그 경쟁자가 가격인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퇴출되면 다시 가격을 올려 손실을 회복하는 방식의 전형적 행위유형이다. 가격을 인하는 저가경쟁은 경쟁의 가장 일반적 모습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점에서 장려되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라면 오히려 금지대상이 된다는 것이므로 얼마나 낮은 가격이어야 하는지가 논의 초점이 된다. 통상 평균가변비용보다 낮은 가격을 금지대상으로 삼는데 미국에서는 이에 더하여 손실회복가능성(recoupment)을 요건으로 추가한다. 문제된 가격이 비용보다 낮은지 여부는 경제분석이 요구되므로, 손실회복가능성 요건을 먼저 심사하여 이를 통과한 경우에만 경제분석을 하는 방법으로 규제비용을 절감하는 경우가 많다.

소설 속 상황은 과일판매 시장이라는 관련시장에서 대지주들이 높은 점유율에 터잡아 낮은 가격에 과일을 판매하여 소규모 농부들이 과일판매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어 퇴출되도록 만들고 그 농장을 대신 인수하는 방식이 문제된다. 낮은 가격 수준이 과일 제배비용보다 낮으면 통상적 경쟁방법이라고 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소규모 농장들을 자신들이 인수하여 시장 독점화가 가속되었으므로 경쟁법이 금지하는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에 해당한다. 더구나 교묘한 것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과일을 활용하여 대지주가 통조림을 생산하여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창출하여 손실회복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소규모 농장들은 대지주들을 상대로 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법무부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 2) 담합

카르텔 또는 담합이라고 불리는 행위는, 오랫동안 행해져 왔던 경쟁법 위반행위이다. 독점자의 단독행위가 일정 부분 경쟁촉진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경쟁제한적

효과와 비교형량이 필요한 반면, 담합은 경쟁제한적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고 담합가담자들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뿐 소비자후생이나 경쟁촉진의 면에서 기여하는 바는 드물다. 담합의 심각한 위법성을 감안하여 경쟁법은 합의만 있고 합의의 실행행위가 없는 단계에서도 이를 금지한다. 그런데 합의는 매우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밝혀내기 어려워져 어느 정도의 간접증거가 있을 때 합의를 인정하느냐가 문제된다[8]. 제3자를 이용한 유형의 간접적 행위에 관하여 합의 성립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hub-spoke 유형이다. 1업체가 관련 시장의 여러 경쟁자들과 공동거래를 하고 있으면 그 경쟁자들이 1업체와만 합의를 하더라도 경쟁자들에게 합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각각 수직적 합의를 하더라도 수평적 경쟁자들 사이에 합의가 인정되고 그 모양이 바퀴의 중심축과 바퀴살과 같다고 하여 hub-spoke 유형이라고 한다.

소설 속 상황은 대지주들이 이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수준을 소규모 농장과 공유하는 과정이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대지주와 소규모 농장 사이에 직접적인 의사연락이 이루어졌는지는 불분명하다. 더구나 재화가 아닌 노동시장의 행위이므로 경쟁법적 규제가 이루어지는 통상의 시장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노동력 수요자들인 농장들끼리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고 경쟁제한행위가 있다면 금지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적이다. 은행과 여러 농장들이 수직거래를 하고 있지만 은행과의 거래는 농장들 사이의 임금수준은 전혀 다른 거래이므로 hub-spoke유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임금수준에 관한 은밀한 합의가 은행을 매개로 대지주와 소규모 농장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할 여지는 충분하고, 합의에 따른 실제 임금 지급이 없더라도 간접적 교섭을 통한 합의로도 담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3) 노동과 경쟁법

앞서 노동법적 관점에서 조드 가족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노조결성과 근로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결성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합의가 담합은 아닌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으로서의 파업이 경쟁법상 문제되는 거래거절행위는 아닌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경쟁법 적용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클레이튼법과 노리스-라구아디아법에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으로서 거래거절을 적법하다고 규정하였고,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판례가 서면법 적용면제

를 인정하고 있다[9]. 우리 공정거래법은 수범자를 영리성을 가지는 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자의 행위는 그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다만 영리성을 가지는 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는 계약노동종사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경쟁법이 적용되고 부당성 판단 단계에서 금지 여부를 판단한다고 할 것이다. 단체협상을 전제로 한 합의는 경쟁법상 금지하기 어려울 것이지만 계약노동종사자들을 상대로 노조가입을 종용하는 피켓팅이나 사용자에게 노조 외 노동공급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경쟁법상 금지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속 상황에서 노조와 사업자들 사이의 임금 합의는 정당한 행위로 부당성이 없어 경쟁법상 담합이라 할 수 없지만,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이주민들에 대한 압박행위나 노조를 통해서만 노동력 공급을 강제하는 경우라면 금지될 수 있을 것이다.

## V. 맺으며

소설 속 서사는 이러하다. ‘포도가 비용도 충당할 수 없을 썩 가격에 팔리니 과일을 따지 못하고 썩도록 내버려 둔다. 버려진 과일들을 주워 먹는 사람이 생기면 가격이 썩 과일마저 팔리지 않으니 과일에 휘발유를 뿌리고 강에 버리고 이것들을 주워가는 사람들을 막으려 경비원을 고용한다. 굶주린 사람들의 눈 속에 점점 커져 가는 분노가 있다, 분노의 포도가 사람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점점 익어 간다. 수확기를 향해 점점 익어 간다.’ 소설 전체를 지배하는 분노에 대하여 존 스타인벡의 형제애적 해결책을 살펴보면, 소설 속 상황을 소재로 법적·제도적 해결책을 헌법, 노동법, 경쟁법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추상적 논의가 아니라 소설 속 상황이나 처절한 분노를 해결해 주기 위한 노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현실에 대한 분노 대신 사회에 대한 건강한 희망을 제시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려는 시도가 있었다. 법학과 소설, 모두의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이 의미를 찾기를 희망한다.

## References

- [1] Roger Ebert, Great Movies2, Translated by Yun Cheolhee, Eulyoo Publishing
- [2] Hwang Chee Bok, Jim Casy in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and Christological

- Tradition in American Folklore, English21, Vol.25, no3 DOI : 10.35771/engdoi.2012.25.3.005
- [3] Kim Kil-Joong, The Symbolic Imagination as Narrative Strategies: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Studies in Modern Fiction Vol.9 no1 UCI : G704-001314.2002.9.1.002
- [4] Shin Hyunwook, The Grapes of Wrath Are Still Growing; The Grapes of Wrath and Its Unfinished Road, In/Outside: English Studies in Korea, Vol 37) UCI : G704-000737.2014..37.003
- [5] Lee ByungTae, "Condition for Authentic Justice represented in John Steinbeck's The Grapes of Wrath."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Vol.37 no3 DOI : 10.21559/aellk.2011.37.3.008
- [6] Cheon, KwangSeok, Structure of Social Inequality, Idea and Norm of Equality, Yonsei Law Review 2018 DOI : 10.21717/ylr.28.3.1
- [7] Chun Yunku, Study on the Origin and Significance of Section 9 of Labor Standard Act, The Journal of Labor Law 20020
- [8] Shon Donghwan, Challenges in Competition Law in Homodeus Era, JCCT vol.7 no.3 doi: 10.17703/JCCT.2021.7.3.285.
- [9] Antitrust Law Development(8th), ABA,